

創面切除術 (debridement)

치아나 치근을 발거하고 잔존된 연조직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식염수로 잘 세척하여야 한다. 발치와 주위의 치조골을 정리하기전에 기타 유리된 골편이나 이물질을 제거해준다.

발치와주위의 예리한 골연을 평활하게 해준다. 대개의 발치와는 잘 치유되지만, 그림 1에서와 같이 발치와에 胚形成(saucerization)을 하여 잔존 혈액응고의 크기를 적게하므로 치유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A. 발치후 일반적인 발치와의 크기, B. C. 협측치조골을 절제하고 치은을 적합시킨 모양, 봉합을 하거나, bite gauze(그림 2)를 물려준다. D. 협설측치조골을 제거하고 봉합한 모양.

D의 모양이 혈액응고 부위를 적게 해주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악지치 부위등에서 가능한 것으로 의치의 장착을 위하여 치조골을 유지하여야 하는 부위에서는 좋지 않다.

D의 경우와 같은 심한 골의 제거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으나 창상부위의 1차성 봉합을 하려할 때 특별히 사용될 수 있다. 1차성 봉합은 치유를 촉진시키며, 술자나 환자 모두에게 술후처치의 어려움을 줄여주며 육아조직형성에 의한 치료 (serondany intention)시 감염등의 우려를 줄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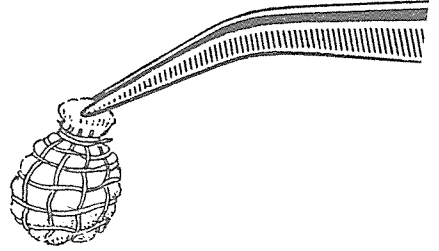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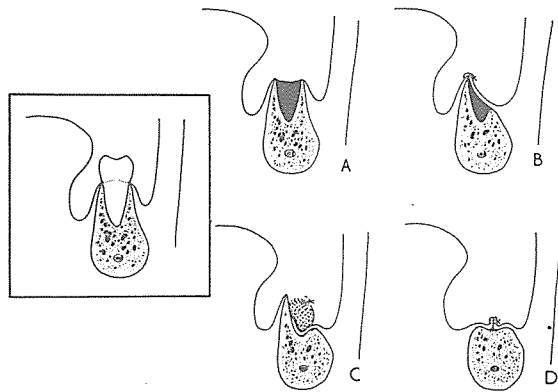


그림 1.

신일치과기공소

代表 孫 永 受

서울·중구 남대문로 5가 6-25(신한빌딩 402호)

☎ 756-2875 · 2876